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Dualism에 관한 연구

이민경·한명숙*

상명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상명여자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A Study on the Dualism Appearing in the Modern Unisex Mode

Min-Kyung Lee and Myung-Sook Han*

Graduate Student,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Womans University

目次

Abstract	1. 性役割의 固定觀念과 概念의 變化
I. 緒論	2.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二元論)의 현상
II. 二元論(Dualism)의 概念	IV. 結論
III.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二元論(Dualism)에 관한 分析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nternal meaning and the external form of Dualism in Unisex Mode ; to investigate the dualistic expression appeared on the Unisex Mode by analyzing the general fashion magazin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phenomenon of Dualism in Unisex Mode may be clues indicating that some roles, once assigned exclusively to either males or females, are becoming mutually shared, or what may be called human roles.

Second, the expression of Dualism in Unisex Mode whether direct away of symbolic way is represented by metaphoric manner such as unisex look(mono sex look,or trans sex look) with spirit of the time's.

Third, the formality and contents that related dualistic mode shows a various method in style, coordination of texture or item.

I. 緒 論

21세기를 앞두고 人類의 文化는 그 어느 世紀보다도 創意的인 感覺과 熱情的이고도 급속한 變化의 追求 및 自由를 구가하고 있다. 즉 高度의 科學技術에 依存하면서 反產業主義의 特性을 띄고 있는 새로운 文明의 創造와 더불어 意識構造를 變革시키고 있다. 多種多様하며 再生 가능한 에너지 資源, 마이컴 技術에 의한 多品種 少量生産, 脫割一化의 影響으로 既存의 社會的 特徵인 規格化, 同時化, 中央集權化와는 다른 個性의 尊重, 多樣化 등의 새로운 生活方式이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變化現狀들은 오랜 人類의 歷史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規範, 價値觀, 思想들에 疑問을 던지기 始作하였고, 이런 環境속에서 變化되어 온 價値觀들은 固定觀念에 맞서기를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그 文化에 따라 갖는 男女의 位置, 範疇, 行動樣式 등에 대한 性役割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性役割은 近來에 와서 男性과 女性사이에 性的 差異라는 基本的 假定이 사라지고, 性別에 基礎를 두지 않은 個人의 差異를 強調하는 새로운 假定이 대두되고 있다.

社會現狀의 次元에서 보면 이미 男女의 구분이 不分明한 라이프스타일로의 變化가 加速되고 있고, 일, 취미, 관심거리 조차도 예전의 固定觀念이 그었던 선이 흐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의 變化를 통해 論議하기 시작된 Dualism(二元論)은 社會, 文化, 라이프스타일, 消費行動, 年齡의 特徵, 패션, 經濟的 측면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創造와 建設을 이루어 내며, 既存의 세계를 支撐해왔던 概念과 意識들을 拒否하면서 그 裏面의 세계를 主張하는 새로운 概念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Dualism(二元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概念으로 보여지고 있는 Dualism(二元論)은 傳統的인 二元論의 觀點을 벗어나서 새로운 方向으로 進化되고 있는 즉, 一元的인 方向에서 二元論의 概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새로운 概念으로서의 二元論의 側面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論文에서는 一元的인 二元論의 方向을 分析概念으로 하여, 現代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性 區分의 모호성의 경향 - unisex(=mono sex) mode, trans sex mode - 이 패션의 이중성에서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가를 論議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또한 既存의 Unisex mode 또는 Trans sex mode 에서 보여지던 단순한 異性的의 模倣이 아닌 各 性에 內在되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自身으로의 이미지네이션으로서의 패션의 Dualism을 論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패션의 Dualism이란 뚜렷이 女性이 입어야 하는 옷, 男性이 입어야 하는 옷이

1) A. Toffler, *The Third Wave*, 유제원 역, 학원사, 1985, p. 39.

라는 概念을 넘어서 하나의 옷안에서 자신의 性의 內面의 世界를 表出하는 着用形式 中の 하나로서 두가지 性의 特性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研究方法으로는 新 概念으로서의 二元論의 傾向이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패션잡지와 대중잡지에 나타난 여성복과 남성복을 對象으로 二元論의 特性을 지닌 사진자료를 뽑아 分析하였다. 즉 現代 패션의 一般的 傾向을 分析하기 위해 數量的 資料를 뽑아낸 다음 그 資料를 가지고 해석적인 敘述方法으로 기술적, 서술적, 질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研究方法은 질적 조사방법으로 假說의 檢證이 아니라 假說의 發見에 目的을 두고 있으며, 패션의 Dualism 現象이 어떠한 사회구조 속에서 發生하였고, 또 그 樣相은 어떠한 방법으로 表出되는지를 연구자의 관찰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패션전문 잡지만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거리의 패션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반 대중잡지에 실린 사진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착용되는 옷의 틀, 혹은 참고가 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時期的으로 1994년 9월~1995년 6월 사이의 잡지만을 다루었으므로 패션의 二元論을 具體적으로 파악하는데는 多少의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II. 二元論(Dualism)의 概念

Dualismus(독), Dualism(영), Dualisme(프)인 二元論의 사전적 定義는 세계의 통일성을 否定하고,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개의 實體 혹은 原理를 인정하며(物質과 意識, 身體와 精神, 肉體와 靈魂, 質料와 形式 등), 종종 唯物論과 觀念論의 結合을 試圖하는 哲學的 立場이라고²⁾ 定義하고 있다. 철학상에서 전형적인 것은 데카르트의 物心二元論이고, 認識論의 분야에서 말하면 칸트의 意識 一般에 대해 현상세계에 대한 物自體의 존재를 認定하는 입장에서 二元論이 보여진다. 나아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두개의 相反되는 별개의 것의 對立을 근본적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을 二元論(Dualism)이라 부른다.³⁾

그러나 西歐哲學思潮의 복잡성 때문에 정확한 意味에서의 二元論에 관한 歷史를 眺望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西歐의 哲學者들이 어떤 형태로든 언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概念을 설명하거나, 또는 二元論을 支持 또는 反對하는 형식에서라도 二元論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하여, 二元論史를 일목요연하게 언급하고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작업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研究의 論理 전개상 필요한 부분만을 二元論의 主流에 대한 언급을 피해 나가지 않는 범위에서 選別的으로 論議하려고 한다.

物質로부터 精神을 분리해 내는 二元論의 範疇를 최초로 제시한 哲學者가 아낙사고라스로 그는 宇宙의 森羅萬象이 최초에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으나, 秩序가 갖추어진 세계에서 마음(mind)이 탄생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宇宙의 根幹을 설명하는 非唯物論的인 힘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에 반해서, 데모크리투스의 原子論은 宇宙에 관한 설명

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1993, p. 285.

3) 임석진 외, 철학사전, 종원문화, 1994, pp. 551-52.

4) William Sahakian, *History of Philosophy*, 권순홍 역, 서양철학사, 문예출판사, 1994, pp. 31-32.

을 순수하게 唯物論의이고 기계적인 觀點에서 展開하고 있다. 宇宙의 根本을 설명함에 있어서 精神이나 物質의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二元的인 思考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二元論的 思考는 永遠의 이동을 고려하는 피타고라스학파로 肉體를 靈魂의 감옥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肉體는 罪와 惡의 源泉이라고 즉, 더럽혀진 肉身으로부터 성공적인 復活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카니즘이 바로 輪廻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西歐哲學에 二元論的 思考를 심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플라톤은 肉體 - 靈魂, 또는 肉體 - 精神의 二分法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思考를 形成하는 中樞의인 役割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肉體와 精神을 媒介하는 知覺理論으로 발전시켰다.⁵⁾

가장 체계적인 二元論은 프랑스 哲學者인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는 意識의 主體가 精神이며, 精神은 物體와 독립해 있으며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物體는 그 本質(定義하는 特性)이 空間을 차지하는 것, 즉 모양, 크기, 공간 안에서의 위치를 갖는 그러한 事物이다. 그리고 物體는 意識이 결코 없다. 반면 精神이 본성상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精神은 전적으로 非공간적이며 모양이나 크기를 갖지 않으며 위치도 없다. 精神의 本質은 단 意識, 즉 思考, 느낌, 記憶, 知覺, 欲求, 感情 등을 갖는 것이다. 그는 精神과 肉體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단지 神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통합적인 原理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⁶⁾ 그러나 데카르트의 설명은 앞의 요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한 결함을 갖는다. 精神의 本質은 意識을 갖는 것이고, 物體의 本質은 空間을 정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精神과 物體가 두개의 분리된 對象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동일한 事物이 이 두 特性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생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空間을 차지하는 事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데카르트는 어떤 特性들이 다만 그 본성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 두 特性들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와 같은 그의 결함은 스피노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피노자는 “비록 두가지 屬性들이 실제로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도 이 두 屬性이 두가지 존재, 즉 두가지 다른 실체들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二元論的 哲學體系는 그 자체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哲學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궁극적인 해답을 내릴 수 없으며 物質과 意識의 相互作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二元論은 이러한 難點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哲學史에는 二元論을 <一元論>의 방향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헤겔철학에 이르러 확립된 辨證法이 그 대표적 형태로서, 그것은 西歐의 二元論의 새로운 모습이며, 과거의 모든 二元論的 思考로부터 하나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헤겔 辨證法은 일련의 삼단계 운동(triad), 즉 정립·반정립·종합을 통해 眞理를 찾아 나가는 역동적 論理이다. 모든 정립은, 그것이 어떤 意味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스스로의 반정립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사실은 그 대립자들과, 요컨대 정립이 아닌 다른 事物들과 聯關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한 對象의 다른 對象들과의 수많은 관계들을 들추어냄으로써만 우

5) *Ibid.*, pp. 36-38.

6) Jerome A. Shaffer, *Philosophy of Mind*, 김승욱 역, 심리철학, 종로서적, 1983, p. 50.

7) Jerome A. Shaffer, 조승욱 역, *op. cit.*, pp. 51-52.

리는 그 對象에 관한 眞理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립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출발점(契機)에 다름 아니며, (宇宙의 法則이라고 할 수 있는) 헤겔의 〈否定性〉의 原理에 따라서 그것은 자체 내에 그것의 고유한 반정립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觀念을 참되다고 假定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대립자 - 즉 그것의 矛盾과 맞부딪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의 그 이전의 외판 意味를 넘어서는 그것들에 관한 또 다른 眞理를 발견하게 된다. 이같은 辨證法的 法則 및 意識의 法則을 개진함에 있어서 헤겔은 「모든 規定은 否定이다」라는 스피노자의 언명에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한 정립의 올바른 意味는 그것의 반정립에서나 정립과 반정립 상호간의 연관성 안에서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립들이나 契機들은 「그것들이 아닌 바의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들을 規定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否定的 關係들이다.」 이러한 부정성의 原理 때문에, 그 대립자들(즉 정립과 반정립)은 그것들 사이의 대립이나 불일치의 결과로서 和解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들은 더욱 높은 통일성인 종합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어떠한 종합적 진리라고 해도 그것은 辨證法的 論理에서 지양되고 「和解된」 두 모순 概念들을 含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辨證法的 論理는, 德과 眞理는 대립된 극단들이나 모순적인 가능성들 사이의 中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을 생각나게 한다. 헤겔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宇宙 속의 모든 연관성들에 확대·적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眞理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辨證法的 대립자들 전부를 마치 그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정합적·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양 고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그가 제시해 준 합일로의 길을 잡은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은 二元論이라는 思考의 範疇가 지극히 제한된 視覺이라는 점을 헤아려 내고, 對待(binary opposition)라는 역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승-로 지향하는 二元組織의 과정적 성격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陰과 陽은 각각 하나의 완결된 實在로서 陰陽二分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兩者는 서로 對照가 되는 인지과정을 경유하여 陰陽合一이라는 단계에서 하나의 완결된 實在가 되는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陰陽合一이란 것을 최종의 目的因으로 규정할 때, 陰陽二分이란 것은 陰陽合一로 향하는 중간 단계의 인식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지금까지 考察해 본 二元論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文化는 進化하고 있으며, 進化과정에 있는 어느 社會의 지배적 사고방식을 至高善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二元論이라는 사고방식 또한 앞으로 더 進化해야 하는 어떤 文化的 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분명 二元論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방향으로 進化하고 있는 시간적인 차원의 가변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論文은 전통적이고 단순한 차원의 즉 兩極對立의 二元論의 관점을 벗어나서, 二元論을 一元論의 방향에서 그리고 辨證法的인 하나됨의 二元論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概念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二元論(Dualism)이란 사람들이 만들어 낸 한 社會의 範疇들과 分類體系들 - 左右, 善惡, 黑白, 天地, 男女 - 와 같은 兩極의 對立되는 概念에 의해 어느 쪽이 어느 다른 쪽에 비해서 '더 좋다'고 판정할 수 있는 位階性으로 인해, 지금까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는 各各으로 認定되었던 兩面性을 하나로 이해하고 認定함으로써, 하나의 客體 혹은 하나의 本質로의 새로

8) William, Sahakian, 권순홍 역, *op. cit.*, pp. 249-50.

9) *Ibid.*

은 융합을 意味하는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觀點에서 二元論을 정의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했듯이, 文明의 發達과 함께 進化되어 온 人間의 意識은 價値의 無境界性, 思考의 無境界性, 文化의 無境界性으로 轉移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립된 이중성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視覺의 變化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變化에 따라 二元論의 觀點 또한 變化되고 進化되고 있는 概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몇년 전부터 社會科學書籍이나 藝術, 文化에 유행처럼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文化 特徵 중의 하나인 不調和의 調和현상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포스트모던 文化에서는 로고스 중심주의의 수직적인 위계의 체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병렬체제로 바뀐 그래서 모자이크의 경우와도 같으며, 서로 다른 異質의인 요소가 無作爲의으로 調合된 알레고리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¹⁰⁾ 巨視的으로 보면 二元論의 概念은 포스트모던 文化가 발생시킨 여러가지 사회현상의 變化 - 劃一性의 拒否, 多樣化, 矛盾性, 兩面性, 多元化 등 - 중의 하나로써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變化현상은 패션에 있어서도 二元論(Dualism)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女性스러운 옷과 男性服 같은 옷을 매치하거나 男性服을 만드는 옷감으로 女性用 슈트와 드레스를 제작하는 등 두가지 性을 동시에 패션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즉 男子는 남자답게, 女子는 여자답게와 같은 古典의인 意識을 넘어서서 男子든지 女子든지 모두 人間답게 라는 더욱 커다란 命題를 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패션을 통해 착용자의 意識과 內面의 世界를 表現하는 方式의 着衣形式 중의 하나로 표면상으로도 二重性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을 패션의 二元論(Dualism)이라 하고자 한다.

Ⅲ.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二元論(Dualism)에 관한 分析

1. 性役割의 固定觀念과 概念의 變化

패션에서 二元論(Dualism) 論議의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는 根據의 확보는 '性役割'이라는 주제에 기본정향을 집합시킴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文化는 男子와 女子를 구별하는 社會的 慣習 - 옷차림, 養育方式, 기대되는 바의 行爲樣式, 言語 등에 이르기까지 男女를 구분하는 規範, 價値觀 등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男子 또는 女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行爲 및 態度를 學習시키는 性役割 社會化 과정을 통해서 성장된다. 그러나 生物學的 性(sex)과 社會的 性(gender)을 구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生物學的 性差에 관한 論議가 集積됨에 따라 生物學的 性은 필연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 불리우는 行爲를 說明하는 데 충분한 條件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雌雄同體 - 출생 전 생식기관의 分化가 이루어질 때, 女性으로나 男性으로서 완전치 못한 생식기관을 갖추게 된 상태 - 의 경우를 통해 例證되고 있다. 따라서 社會的 性 正體感(gender identity)이 生物學的 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文化人類學的 자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¹¹⁾

더욱이 현대에 접어들면서 性役割의 固定觀念과 전통적 性役割 概念은 變化하기 시작하여, 兩性간에 다른 것으로 구분되었던 性役割 固定觀念은 매우 임의적이며 한계가 있는 概念이라

10)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 40.

11) 권의원 외, 현대 사회학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pp. 100-101.

보게 되었으며, 男性과 女性 모두의 행동범위를 제한시키며 各 個人의 자기발전과 자기완성에 한계를 갖게 하였다. 이렇게 단일 차원에서 서로 상반되게 표현되는, 男性性 女性性的의 두 兩極으로 性役割을 가정해 오던 전통적인 假定에 論爭을 가져오게 되어, 최근에 心理學者들은 心理的 男性性和 女性성에 관한 이러한 일차원적 관점에 도전하여 왔다.

이러한 도전은 性役割의 概念에 變化를 가져왔으며, 남향성 대 여향성이라는 동일한 차원상의 兩極概念으로부터, 이 둘을 별개 차원상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兩性(Androgyny)概念으로 變化하였다. Androgyny란 性役割에 대한 兩性 성격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¹²⁾ Androgyny의 출현외에 또 다른 概念의 變化가 등장한 것은 性役割의 학습 및 발달을 단계론적 입장에서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性役割의 분화가 되지 않은 단계, 제2단계는 兩極화된 性役割 분화단계, 제3단계는 性役割 초월단계라 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며, 행동 및 감정표현은 性別과 관련된 '적합한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Bem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男性的 및 女性的 特徵들의 모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¹³⁾

이처럼 近來에 와서는 男性과 女性 사이에 性的의 差異라는 기본적인 假定이 사라지고 性別에 기초를 두지 않은 個人의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假定이 대두되었다.¹⁴⁾ 이와 같은 變化는 文化 속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되어 왔고, 가장 뚜렷한 性差에 대한 새로운 概念을 만들어 내면서 男性과 女性이라는 二分法的 思考를 뛰어 넘어서 性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기를 바라게 되었으며, 또한 各 性에 존재하는 兩性的 特性을 認定받고자 하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 心理는 패션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女性이 입어야 하는 옷, 男性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概念을 넘어서 두 가지 性的의 特徵을 담아내는 새로운 차원의 유니섹스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한 차원에서 男性이 여성인양 혹은 女性이 남성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異性的의 옷을 模倣하던 既存의 유니섹스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간에 입고 싶은 것은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유니섹스 모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2.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二元論)의 현상

어떤 社會나 男女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은 衣服에 영향을 주며, 이 역할은 또한 衣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¹⁵⁾

그러므로 오랫동안 傳統이나 慣習에 의하여 性에 따라 구별되는 衣服을 사용하였다. 服飾은 役割 중에서 특히 性役割을 認識하는 데에 있어, 뚜렷한 對象이 되어 왔으며, 男子가 女子의 衣服을 입는 것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처럼 衣服에서 性的의 구분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 지속은 男女의 역할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衣服에 의하여 지속

12) J. L. Orlofsky, Psychological Androgyny, Sex-Typing and Sex-Role Ideology as Predictors of Male-Female Interpersonal Attraction, *Sex-Role*, 8, 1982, pp. 1057-1073.

13) S. L. Bem, Gender Schema Theory :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1981, pp. 354-64.

14) E. W. Jane and K. P. Kim, An Integrated Theory for Gender Differentiation In Dress, *HERJ*, 1990, p. 1.

15) M. R. DeLong, C. Salusso-Deoniex, and K. Larntz, Use of Perception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ERJ*, 11, no. 2, 1983, pp. 327-36 passium.

되어왔다. 사람들은 단순히 男子가 어떤 방식으로 입으면 女子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입기를 바란다. 즉 性別에 따른 傳統衣服에는 行動과 연관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¹⁶⁾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女性은 스커트를, 男性은 바지를 입었는데 스커트는 女性의 役割을 象徵하여 즉 온화하고 의존적이며 비공격적인 것이며 반대로 男子의 바지는 男性의이며 힘이 세고 독립적이며 공격적이라는 女性과 반대적 特性을 나타낸다.¹⁷⁾ 또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衣服의 구분을 배우며 衣服을 社會化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女性은 社會的으로 男性을 모방하는 습관보다는 그녀의 다양한 활동에 편리하고 신체적으로 쾌적한 것을 제공해 주는 衣服의 형태를 입는다. 즉 現代 女性은 다양한 役割에 맞게 변화할 수도 있고, 특별한 役割에 적당한 衣服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여유가 있다. 따라서 女性의 衣服은 더 이상 19C와 같이 그녀를 신체적 핸디캡이나 의존적인 위치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女性과 男性 패션에서의 변화는 계속 행해졌던 役割의 변화를 조절해야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unisex” dress에 대한 경향이나 女性만큼 男性 衣服에 과시성(display)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향은 男性, 女性이 함께 공유하는 人間役割로서 보여진다면, 衣服은 優等 - 劣等關係에서 男性, 女性을 象徵하는 구분의 意味로서보다는 人間을 위한 衣服으로써 더욱 인지될 수 있다.¹⁸⁾

이러한 배경속에서 女子는 여자답게, 男子는 男子답게 입어야 한다는 既存意識에서 벗어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간에 입고 싶은 것은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女性의 몸에서 혹은 男性의 신체에서 男性과 女性의 屬性이 뒤엉켜 있는 느낌의 옷차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女子가 男子인양, 男子가 女子인양 입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에서 두가지 성적 매력이 동시에 풍겨져 나오는 것, 즉 Dualism이 새로운 유니섹스 혹은 모노섹스의 경향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既存의 유니섹스의 경향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進化된 유니섹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의 모노(mono)는 衣服에 있어서 ‘자유’라는 意味를 품고 있으며, 性의 구분이 없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人間の 心理가 衣服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衣服의 유니섹스화 경향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男女 공통의 바지를 매개로 비롯되었으며, 보다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남성들만의 衣服이던 바지가 女性들에게 입혀지기 시작하여 女性 衣服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에서 女性은 스커트를 입고 男性은 바지를 입었던 것과 같이, 人類의 衣服 習慣 중에는 性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뿌리 깊게 이어져 왔으나 기능주의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그 慣習은 점차 緩和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戰爭으로 인하여 젊은 女性들은 스커트 대신에 바지나 셔츠를 작업복이나 운동복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女性들의 바지착용 현상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一般化되었다.¹⁹⁾

더우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젊은 세대들이 패션을 주도하면서 유니섹스 衣服을 즐겨 입게 되었다. 1967년에 이브생 로랑은 男性의 수트와 유사한 女性의 팬츠수트를 발표하였고, 수

16) M. E. Roach, *The Social Symbolism of Women's Dress*, ed. Sol Tax, World Anthropology : The Fabrics of Culture, J. M. Cordwell & R. A. Schwarz(Moutonpublisher, 1979), p. 416.

17) *Ibid.*

18) *Ibid.* p. 422.

19) 丹野, 原田二郎, 이회연 역, 서양복식사, 경춘사, 1984, pp. 226-27.

트안에 블라우스와 조끼를 입고 타이를 맨 모습은 男女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 유니섹스 패션이 정착하게 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까지 지속되었다. 즉 男女가 같은 무늬, 같은 색상의 스웨터를 같이 입는 것이나, 女子들이 男子들과 유사한 자켓, 바지, 조끼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 등으로 캐주얼한 유니섹스 룩이 流行하였다. 性의 구분이 없이 男女 공통으로 입혀지는 衣服을 意味하는 유니섹스 衣服은 비록 女性들이 편리하게 활동적이며 남성적인 스타일의 衣服을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일 뿐이며, 女性과 男性이라는 두 性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진다는 意味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유니섹스 경향은 종속적이거나 열등하다는 女性을 나타내는 傳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象徴的 要求나 男性과 동등해지려는 척도로써 男性들의 바지나 수트를 인식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상징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유니섹스 모드는 過去에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에 대한 文化的 規定의 변화와 基準의 緩和를 象徴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자가 여자답다’라든가 ‘남자가 남자답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그 뜻을 받아 들이는 태도가 매우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는 물론 남자들 모두가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패션에 있어서 性別에 관계없이 긴 머리를 하고, 러플이 달리거나 turtle neck의 셔츠를 입었으며, 男性의 양복, 셔츠, 넥타이 등은 선명한 色相과 文樣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女性의 男性의 착장은 물론 男性의 女性의 착장이라는 페미오 패션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女性의 밀리터리 룩, 머스쿨린 룩 수용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페미오는 日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서 페미년의 “페미”와 男子의 日本語 發音 “오”의 合成語로 이뤄진 말로서 男性의 女性 컨셉 수용을 의미한다.²⁰⁾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이처럼 性의 구분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미지로서 새롭게 轉移되고 있는 유니섹스 모드를 二元論을 설명적 분석틀로 사용하여 세가지로 집약시켜 論議해보고자 한다.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패션의 二元論的 현상은

첫째, 性의 구분이 불분명한 즉 Dress alike(똑같이 입자)와 같은 현상은 男·女性服의 아이템 選定에서부터 適用된다. 이것은 많은 형태의 옷들이 양쪽 性 모두가 입을 수 있는 T 셔츠, 니트웨어, 스웨트 자켓, 반바지, 넥타이, 블라우스, 소매없는 셔츠, 베스트, 진(jean)의 刺繡, 샌달, 테니스화, 軍靴, 貴金屬 裝身具 등은 男女 모두에게 通用되는 아이템으로 脫性別化(Desexualization)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아이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스타일, 직물의 무늬, 색상, 디테일은 서로 다른 性의 두사람이 얼마나 類似한가를 보여주면서 이제 男性과 女性은 함께 ‘人間’으로서의 또 다른 領域으로 들어섰음을 象徴하는 패션의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 1>에서 보듯이 男性의 전통적인 正裝 형태인 턱시도도 밝은 靑色이나 赤色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밝은 실크의 허리 장식띠와 주름 장식의 셔츠를 함께 착용함으로써 色相이나 디테일의 사용 구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象徴하고 있다.

20) 섬유저널, 1995, 4,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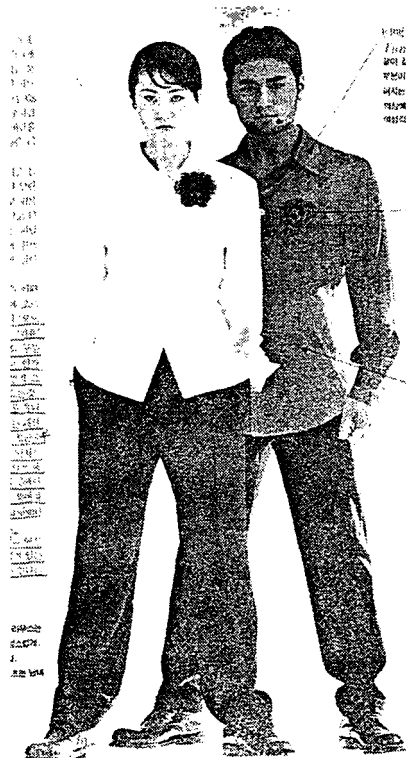
<사진 1>



<사진 2>

<사진 2>는 男性의 체크 플리츠 스커트와 T 셔츠의 무늬는 男性服에 있어서도 다양한 줄무늬와 대담한 色相을 採擇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男女의 衣服 아이템에 대한 固定觀念을 탈피하고자 하는 欲求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진 3>에서 男性의 블라우스는 보통 女性服에 많이 사용되는 프린세스 라인과 코사주를 男性도 블라우스에 달고 있다. 女性이 착용한 바지와 구두는 男性들에게서 많이 사용되던 형태였으나 女性이 착용함으로써 앤디한 멋을 풍기고 있다.

<사진 4>는 男性과 女性이 같은 계열의 색상과 비슷한 디자인의 자켓과 블라우스 특히 女性이 착용한 남성복 수트를 여성화시킨 테일러드 룩의 앤디 스타일 그리



<사진 3>



<사진 4>

교차시킴으로서 女性의 內面에 존재하는 男性的인 屬性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兩性具有 스타일의 믹스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女性이 착용하고 있는 보우타이는 이제 男女 모두를 위한 아이템으로 수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세번째, 이처럼 性의 구분이 모호한 아이템과 각 아이템에 사용되는 스타일, 그리고 아이템 간의 코디외에도 여기에 사용되는 織物의 질감, 즉 서로 對立되는 織物의 特徵들을 함께 활용하면서 자연스런 調和를 이루었던 편안하고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질감의 믹스엔 매치 범위를 벗어나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對立되는 두 概念의 또 하나의 兩面性의 共存을 만들어가면서 織物의 觸感和 重量에 있어서 Soft-Hard, Smooth-Rough, Rich-Poor, Fragile-Solid 등 서로 相反되는 特徵들이 하나의 아이템내에서 혹은 과감하게 믹스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사진 6>에서처럼 下衣에 데님과 부드러운 꽃무늬 실크소재를 함께 덧붙여서 既存 織物의 믹스 범위를 넘어 자유로운 믹스를 하나의 아이템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진 7>은 레이스가 살짝 보이는 풍성한 롱 스커트와 하늘하늘한 망사 블라우스에 전혀 다른 觸感和 重量의 청자켓과 군화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스타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織物의 調和에 있어서도 對立되는 特徵들을 믹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진 8>의 예처럼 男性이 착용한 연한 하늘색 綿織物 셔츠의 작은 꽃무늬는 보통 女性服의 테일러드 투우피이스, 드레스와 수트, 블라우스 등에 많이 사용하는 무늬이지만 유니

고 男性의 목걸이 착용은 남녀 의복의 뚜렷한 아이템에 있어서 색상과 스타일 그리고 악세서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둘째, 男女 衣服 아이템의 모호성은 코디네이트 패션에서 주도적인 경향으로 浮現되고 있는 相反된 두가지 라인이 共存하는 스타일의 착용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女性스러운 스타일의 아이템과 男性的인 스타일의 아이템을 함께 매치시키는 것, 혹은 男性服의 기본인 화이트 셔츠에 女性美를 象徵하는 프릴이나 러플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또는 男性스러운 테일러드 자켓에 우아한 롱 스커트를 코디하는 것은 男性美와 女性美의 調和으로 이것은 兩性混合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5>에서는 男性스러운 스타일의 스트라이프와 체크가 매치된 女性의 싱글자켓을 에이라인의 스커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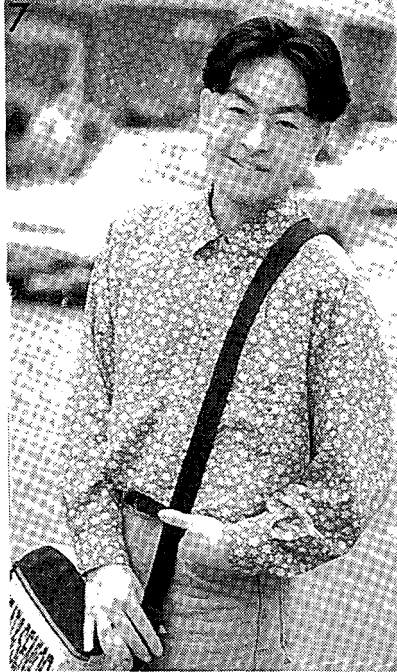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섹스 모드의 경향으로 男性服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織物에 있어서의 Contrast 현상, 즉 엄격한 남성스러움과 부드러운 여성스러움,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위적인 표현은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텍스처의 조합으로 새롭게 進歩되면서 두가지 性의 特性을 동시에 表現하고 있는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나는 하나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9>의 상의의 블라우스와 모자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바지는 진 바지로써 터프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상의와 하의의 소재면에서의 이중성과 더불어, 진 바지위에 덧입어 원피스 효과를 내는 니트도 兩性的인 美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IV. 結 論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二元論(Dualism)의 현상은 직접적인 방법이건 혹은 상징적인 방법이건 간에 現代의 時代 精神과 함께 人間의 모든 조건을 認定하면서 隱喻的으로 표현되었으며, 뚜렷이 女性이 입어야 하는 옷, 男性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概念을 넘어서 하나의 옷 안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두가지 性의 特徵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더우기 ‘- 다음’ 즉 ‘- 답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認識과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요구될 자신의 삶의 방식(女性·男性 모두)을 스스로의 價値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男性이 남성다운 것이요, 女性이 여성다운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時代의 여성

다움이 오늘의 여성다움과 다르고 미래의 여성다움이 오늘의 여성다움과 다르다는 認識이 인정된다면 ‘- 다움’이라는 것도 ‘역사적 의미’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現代 衣服 變遷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는 二元論(Dualism)을 분석개념으로 하여 잡지의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二元論的 現象은

첫째, 性 구분이 모호한 男·女性服 모두에 通用되는 아이템의 사용과 이러한 아이템에 사용되는 色相과 디테일의 混合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스타일에 있어서도 相反되는 두가지 라인이 함께 매치되어 하나의 아이템내에서 혹은 아이템간의 코디에서 兩性混合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변화현상은 서로 다른 질감의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인 특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양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參考文獻

1. 박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1993.
2. 설유저널, 1995. 4. p. 231.
3. 이재연,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 여성연구, 제 22권, 1983. 12. pp. 87-97.
4.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5.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1994. pp. 551-52.
6.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7.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3.
8.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3.
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출판사, 1993.
10.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1. Bem, S. L. Gender Schema Theory :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1981), pp. 354-64.
12. Bond, David.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13. Delong, M. R. Salusso-Deonier, C. and Larntz, R. Use of Perception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ERJ*, 11, No. 2. 1983.
14. Flu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68.
15. Horn, M. J. and Gurel, L. 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16. Jane, E. W. and Kim, K. P. An Integrated Theory for Gender Differentiation In Dress. *HERJ*, 1990.
17. Orlofsky, J. L. Psychological Androgyny, Sex-Typing and Sex-Role Ideology as Predictors of Male-Female Interpersonal Attraction, *Sex-Role*, 8(1982).
18. Roach, M. E. *The Social Symbolism of Women's Dress*, ed. Sol Tax.

19. Ruth, Benedict. *The pattern of Culture*. 김열규 역, 문화의 패턴. 탐구당, 1989.
20. Sahakian, William. *History of Philosophy*. 권순홍 역, 서양철학사. 문예출판사, 1994.
21. 김승옥 역, 심리철학. 종로서적, 1983.
22. Toffler, A. *The Third Wave*. 유재원 역, 제3의 물결. 학원사, 1985.
23. J. M. Cordwell and R. A. Schwawz. *World Anthropology : The Fabrics of Culture*
Mouton Publisher, 1979, p. 422.
24. Fashion Today. (주)패션정보사, 1994. 9.
25. Ceci. (주)중앙일보사, 1995. 5.
26. Fashion Today. (주)패션정보사, 1995. 3.
27. Figaro. (주)경향신문사, 1995. 6.
28. 여성중앙. (주)중앙일보사, 1995. 2.
29. 레이디경향 (주)경향신문사, 1994. 12.
30. Ecole, 대한교과서(주), 7.